

영화 배경으로서의 도시 공간의 특징과 의미 해석

- 1960년 이후의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

서영애* · 조경진**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nterpret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Meanings of Urban Spaces as the Background of Films

- Focusing on Korean Films from 1960's -

Seo, Young-Ai* · Zoh, Kyung-J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meanings of urban spaces which are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films, and to capture the interactions of ordinary culture and urban spaces. By reading urban spaces through film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variety of experiences that are hardly captured with direct eyes, specific and vivid urban images, and various events formed by the interactions of spaces and people. The scope of the study is the urban spaces revealed in Korean films portraying cities after the 1960's as their settings, and the total of 18 films was selected with every 4~5 films for each time stage. With the selected films, analytical meanings were developed with considering three aspects; 1) phylogenetic meaning that simply reflects social-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2) the outer strum meaning that concerns the situation of special background and film scene, and 3) metaphorical and metonymic meaning on films. According to the appearance frequency, spatial backgrounds of film scenes are mainly alleys, main streets, railroad, loft, and riverside. And then the connection between spaces and meaning clusters was grasped, and reflected meanings were derived for every spaces. And the meaning of urban space in films was analyzed based on the meaning of developments and outer stratum.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feelings of people in media such as films are more emphasized than in real world. Urban space is not considered as a simple visible shell, but is recognized as 'a real situation' created by people. The intension of this study was to open the possibility

of the various views of urban spaces. The construction of the urban space should be approached from a perspective of creating new places at where the space and human beings interact with considerations of stories of various human lives. I hope new vistas can be opened up for the research subjects and methodologies about the hereafter study of urban spaces through the mutual communications with various adjacent regions including films.

Key Words: Meaning of Spaces, Background of Korean Films

I. 서론

도시 환경은 기호의 집합체로서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읽을 거리'로서 정보를 전달하고 의미를 제공해준다(강홍빈, 1983). 도시 공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보고 듣는 물리적 공간의 현상 이상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도시 공간을 체험하는 사람의 감정, 정서, 가치, 태도 등을 포함한다(이명희, 1989).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 개념에서 생산, 소비되는 사회적 산물로서의 공간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정된 공간이 사용자의 다양한 행태 및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 그 성격과 쓰임새가 달라지기도 한다. 도시 공간을 읽는 방법 또한 다양해져서 학제간의 교류 및 연계가 활발해지며 그 분야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추세이다. 문학(박철수, 2002), 광고(이원아, 1995), 미술(이경화, 2004)에서 도시 공간과 경관의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가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영화를 통해 도시 공간을 읽는 시도이다. 영화는 문학작품과 더불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의 문화를 종합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 주는 매체이다(김성곤, 2004). 도시의 정서와 문화, 동시대의 사회상은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도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대상으로써가 아닌, 도시적 삶의 양태가 투영되는 문화의 집적체이기 때문이다. 영화는 도시 공간을 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도시의 삶이 압축되어 투영된다. '도시는 영화적 시·공간 조작의 실험대상이며 무한한 소비에 대한 집단적 꿈이 실현되고 좌절되는 곳'(김소영, 1996)이 된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영화 속에 주로 담긴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

고, 도시 문화와 공간과의 상호 연관성의 탐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지각되는 경험과 구체적이고 생생한 도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시와 영화에 관련한 기존 연구로는 현대 사회의 특징 및 근대성, 도시성을 사례 영화에 의해 조감한 김재희(2002)의 연구와 역사지리 관점의 공간정치 경제학 방법론에 의한 김태형(1999)의 연구가 있고, 정은주(2001), 전범진(2002)은 특정 영화를 사례로 도시의 건축 공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포괄적인 도시성과 현대성에 관련된 연구와 영화 미학적 차원의 공간 논의를 바탕으로 영화 속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도시 공간의 양상 및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보편적인 의미와 구조를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이론서와 연구 논문 및 논설 등의 문헌을 통하여 연구의 기초적 전제가 되는 영화와 도시 공간의 상호 관계를 고찰한다. 영화 속의 도시 공간 의미 분석의 틀로서 미학의 작품 분석 방법을 기저로 하여 영상 기호학의 의미 작용 및 의미 체계를 고찰하고, 이를 종합하여 재정립한 해석의 틀에 의해 사례 영화를 분석한다. 이 해석의 틀로서 한국 영화에 나타난 주요 공간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영화와 도시 공간

영상 매체는 도시 공간 체험 방식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일상생활의 시각 경험을 변화시키는 도구 중 카메라의 보급은 인간의 가시적 영역을

확장하였다. 벤야민(Benjamin, 1983)은 복제기술로서 사진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각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렌즈에 의해 포착되어 원작의 의도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기도 하고, 확대나 고속 촬영술과 같은 기계적 조작의 도움을 받아 자연적 시각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는 이미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간주되던 것이 사진 예술에 의해 보이게 되었으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시각 세계를 확장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진 예술에서 발달된 영화는 보다 드라마틱하게 인간의 시각 체험을 극대화시키며, 대도시 체험 방식에 영향을 주었다. 대도시의 모더니티 경험을 '영화, 아케이드 경험, 여성 주체' 중심으로 기술한 줄리아나 부르노(Giuliana Burno)는 도시의 공간적 욕망의 새로운 형태인 영화를 대도시의 산물로 보고 대도시에 산다는 것은 '영화적 상황'에 접근하는 다양한 인지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김재희, 2002: 22 재인용). 즉 도시에 산다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미지를 조망하게' 되며 그러한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생활환경의 모든 대상은 유동하는 스펙터클이 되고, 파노라마처럼 닦쳐오는 시각각의 과부하는 모더니티의 주요한 감각기관인 '눈'을 자극한다(주은우, 2003).

영화를 통한 도시 공간 읽기는 도시 공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생산 관계를 드러나게 해준다. 이렇게 도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공간이 생산, 소비되어 가는 '사회 공간(social space)'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는 사회 공간을 물질적인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및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적 공간(representational spaces)으로 구분하였다. '공간의 재현'이 한 사회의 지배적 공간담론으로서 언어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재현적 공간'은 거주민들이나 예술가들에 의해 비언어적으로 표상되는 공간이다(Lefebvre, 1991). 영화라는 매체의 등장은 도시인의 시지각 경험에 영향을 주었고, 영화를 통한 '재현적 공간'에서 표상되는 도시는 실제보다 더욱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구동희, 1999).

2. 의미해석의 틀

영화 속의 도시 공간 의미 해석의 틀은 하르트만(Hartmann, 1953) 미학의 작품 분석 방법을 기저로 하여 영상 기호학의 의미 작용 및 의미 체계를 원용하여 연구자가 재정립하였다. 하르트만은 미술 작품 분석의 방법을 층위에 의해 설명하였다. 대상물은 감성적, 실제적인 부분과 나타나는 비감성적, 비실재적인 부분으로 구분되고 이를 전경, 후경이라고 했다. 예술 작품의 물질적 기체를 '전경'이라고 하고 이 전경에서 떠오르는 정신적 내용을 '후경'이라고 부른다. 후경은 다시 여러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진 층층적 구조를 이룬다. 즉 보이는 것은 실재하는 것과 현상하는 것의 융합을 의미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도시 공간의 의미도 실재하는 것의 의미와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도시 공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도시 공간을 읽기 위한 기호 체계로 파악하는 기호학적 입장과 관점을 공유한다(기호학 연대 편, 2003).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도시 공간의 의미구조는 도시 공간을 하나의 읽기 위한 텍스트로 놓고 볼 때, 모든 텍스트 의미는 변하지 않는 의미와 변하는 의미로 구성된다(김창원, 1994). 변하지 않는 의미란 배경과 의도에 따른 발생적 의미와 시각적, 기능적 의미인 표층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하는 의미는 실제 소통 과정에서 개입하는 제반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잠재적 의미의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본적 의미 구조의 틀과 영상 기호학적 의미 작용을 고려하여, 영화에 담긴 도시 공간의 의미 해석을 위한 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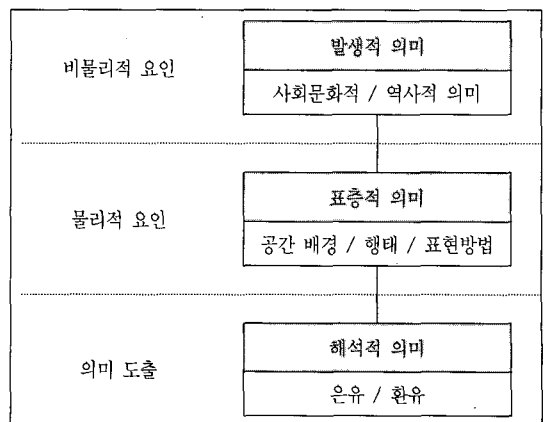


그림 1. 해석의 틀

우선 의미 구조의 세 가지 층위 중 첫 번째는 발생적 의미이다. 이는 한 영화의 전체 성격을 구분하는 것으로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의 탐색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영화의 장면, 즉 텍스트가 가지고 있거나 표현하고 있는 시각적, 지시적 의미로서 이는 물리적 의미, 혹은 영상 기호학의 기본 개념인 유상적 기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의 각 장면마다 배경이 되는 공간, 주변 경관, 인물의 행태, 표현방법 등이 이에 해당하며, 두 번째 층위인 표층적 의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서는 이와 같은 컨텍스트, 텍스트적 의미 분석 후 담화적 의미 해석으로서 영화적 은유 혹은 환유적 의미 해석 단계이다. 이것은 영상 매체에서만 가능한 표현으로 그 장면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 내포하는 의미, 즉 추상적 개념을 영상화한 영상 기호의 의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순, 1995). 즉 발생적 의미는 생산 배경과 의도 지향성으로 비물리적 의미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의미로 함축할 수 있다. 물리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층적 의미로 함축되어 시각적·기능적 관계를 지향하며, 나머지 환유, 은유적 의미 해석은 소통과 해석의도 지향성의 해석적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로서 한 영화의 전체 발생 맥락과 시대적 배경과의 관계, 각 장면에서의 표층적 의미, 그로 인한 해석을 통해 도시 공간의 다양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III. 영화 선정 및 사례 영화의 해석

1. 영화 선정

사례 영화 선정의 시간적 범위는 한국 근대화의 태동 시기인 196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한국 영화로 한정하였다. 영화 작품은 현실 세계를 반영한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로서 공간과 사건의 연관성이 비교적 높은 영화로 선정하였다. 리얼리즘이란 사실주의, 즉 객관적 사물을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는 일상적 도시 공간이 있는 그대로 배경으로 사용되는 반면, 표현주의적인 성향의 작품에서는 작품에서 배경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연히 일상 공간과 영화적 사건

과의 관련성에 주목하는 연구 관심에 비추어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를 사례로 삼게 되었다. 또한 연구에서 다루는 공간은 도시의 실내 공간보다 외부 공간으로 한정하였다. 내부 공간보다 외부 공간이 의도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1960년부터 1989년까지의 영화선정은 『한국영화 70년 대표작 200선』(영화진흥공사기획, 1989)을 토대로 하였고, 1990년 이후의 작품에 대해서는 흥행 순위 및 문제작 등을 고려하여, 참고 자료(<http://www.kofic.or.kr>: <http://www.seoulfc.or.kr>) 및 영화 관련자 인터뷰(씨네21 전 편집장 조선희, 필름 2.0 전 편집장 이현수) 등을 토대로 사례 영화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영화를 각 시대별로 사례 영화를 선정하였다. 시대에 따른 도시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변화는 영화제작의 내외적 요인으로 반영되었다(이효인, 1999). 도시의 발달사²⁾와 영화사적 구분³⁾을 토대로 선정된 영화는 표 1과 같다. 1970년대는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 군부정권에 의한 정치적 탄압, TV의 보급 등의 이유로 기준에

표 1. 선정 영화

구분	영화명	년도	감독
1960~1979년	박서방	1960	강대진
	마부	1961	강대진
	오발탄	1961	유현목
	수확여행	1969	유현목
	바보들의 행진	1975	하길중
1980년대	바람 불어 좋은 날	1980	이장호
	꼬방동네 사람들	1981	배창호
	칠수와 만수	1988	박광수
	구로아리랑	1989	박종원
1990년대	장미빛 인생	1994	김홍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1996	홍상수
	초록물고기	1997	이창동
	인정사정 볼 것 없다	1999	이명세
2000~2004년	플란다스의 개	2000	봉준호
	박하사탕	2000	이창동
	와니와 준하	2001	김용균
	고양이를 부탁해	2001	정재은
	후아유	2002	최 호

표 2. 오발탄: 사례 영화의 의미해석

발생적 의미	표층적 의미					해석적 의미		
	장면	공간배경	주변경관	인물행태	표현방법			
· 전쟁 직후의 혼란기				대로	변화된 상업 공간, 자동차, 복적입	치통으로 괴로워하며 걷다.	밝은 거리의 변화함과 주인공의 대조	시련
				대로	한적한 대로, 대형 건물군	경찰서에서 여동생을 데리고 나와 멀리 떨어져서 걷다.	주인공을 확대하여 상심함을 강조함	시련
· 사치와 퇴폐풍조				대로	자동차로 덮힌 야간대로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상황에 무작정 걷다.	주인공의 상심한 표정에서 정처 없는 발길 묘사로 이어짐	좌절
· 불신풍조				소로	어두운 주택가 소로	전쟁에서 장애자가 된 친구와 걷는 남동생	어두운 소로와 대화하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보여줌	좌절
· 물질만능주의				소로	해방촌 산동네 경관	높은 위치의 집까지 걸어 올라가는 뒷모습	인물묘사에서 산동네 경관의 강조로 변화	시련
·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기				소로	화려한 흥등가 주변	양공주가 된 여동생이 우연히 옛 애인과 마주침	화려한 기로 분위기와 어두운 소로를 병치	비극
				기차길	기차길 주변의 공장 주택경관	전쟁 중 만난 적 있는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반가워 함	미소 띤 두 주인공의 표정에서 기차길 경관으로 연결	낭만
				옥상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난간	계단에 오르며 아래를 내려다 보고 대화	높은 계단 인물들이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높이감 강조	신분 상승의 욕구

적합한 영화가 많지 않아서 1960년대와 같은 시기로 구분하였다.

2. 사례 영화의 해석

사례 분석을 위해 선정된 총 18편의 영화를 위에서 제시한 해석의 틀에 의해 각 영화별, 각 장면별 의미를 해석하였다. 표 2는 1961년작 유현목 감독의 작품인 '오발탄'의 의미 해석의 예이다. '오발탄'은 전후 폐허에서 한국인이 경험했던 절망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뛰어난 영상미로 표현한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이용관, 1999). 이 영화 속에 나타난 주요 공간은 해방촌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달동네와 도시화로 급속히 변해가는 도시의

상업 공간, 주인공이 도시적 삶에서 소외되고 고통을 받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무대로서 대로(大路), 그 외에 옥상, 기차길 등이다. 이 영화에서 옥상 공간은 전쟁 후 비참하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여인의 대사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살고 싶었다'로 볼 때 신분 상승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으며, 전쟁 중 호감을 가졌던 남녀가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 배경공간인 기차길은 낭만적 분위기로 표현되고 있다. 의미 해석은 세 가지의 층위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층위는 영화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는 발생적 의미 분석 단계이고, 두 번째 층위는 영화의 주요 장면들을 공간배경, 주변경관, 인물행태, 표현방법을 고찰하는 표층적 의미 분석단계, 세 번째 층위는 각 장면이 암시적으로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해석적 의미 분석단계이다.

IV. 영화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의미

1. 사례 영화에 나타난 주요 공간 및 특징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8편의 사례 영화에 등장하는 배경 공간 중에서 소로, 대로, 기차길(선로, 플랫폼 포함), 옥상, 강변이 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8편의 영화에서 소로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으며, 대로는 16편의 영화에서, 기차길은 14편의 영화에서 등장하였다. 주요 다섯 공간 이외에도 단독주택, 시장, 상가를 배경으로 하거나 운동장, 공원 등의 오픈스페이스가 있었고, 이 외에 공동주택, 대형건물, 간판이나 전광판이 6~7의 영화에서 등장하였다. 영화의 선정에 따라 주로 등장하는 배경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상의 결과보다는 도시 공간 중에서 비교적 중요하게 등장하는 배경이 무엇이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해 나타난 다섯 공간(소로, 대로, 기차길, 옥상, 강변)의 특징 및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영화에 나타난 외부 공간 중에 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도시의 공공 공간 중 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

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 문화적 특성상 일상적인 생활이 공원이나 광장보다는 길에서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로는 사적 공간에서 대문을 열면 바로 만나게 되는 공적 공간으로서 예로부터 일상적인 공동체적 의사 소통을 위한 장과 생활공간 등으로 폭넓게 이용되는 영역이다. 영화에서 길은 삶의 다양함이 펼쳐지는 일상적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주요 배경으로 나타난 공간은 기차길, 옥상, 강변으로 이들은 서로 다른 성격의 경계 공간이란 공통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계 공간이란 두 가지 다른 공간의 전이 지대이자 애매한 중간 영역이다. 기차길은 새로운 장소로 떠남과 익숙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전이 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옥상은 자연과 도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공간이며 강변은 자연과 인공이 만나는 매개 공간이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배경으로 기차길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옥상은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도시 공간 속의 중요한 생활공간의 하나로서 일상적인 삶을 관조하고 내적인 성찰을 하는 장면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공간의 성격이 지니는 애매함과 비고정성으로 인해 감정을 변환하게 해주는 데 적합한 배경이 된다. 영화 내러티브 전개상 극적 상황의 강조나 드라마틱한 표현에 경계공간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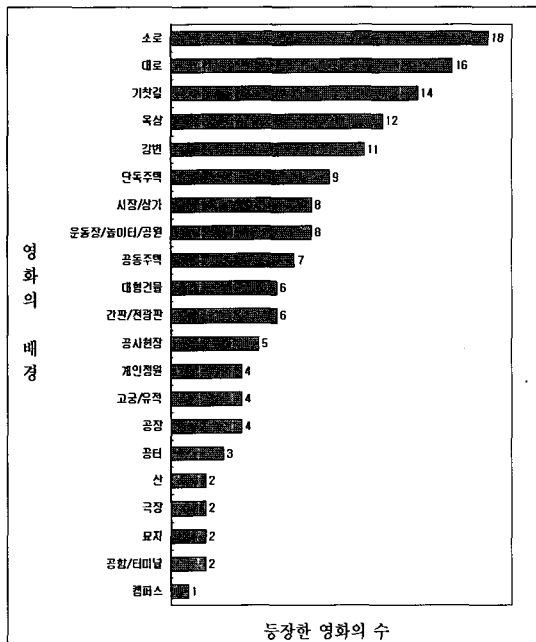


그림 2. 사례 영화의 배경 및 등장한 영화의 수

2. 사례 영화에 나타난 주요 공간의 의미해석

이러한 주요 도시 공간이 주로 표현하고 있는 공통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각 영화의 각 장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다 단순화 하는 작업으로 비슷한 의미를 그룹화하여 8가지 의미군으로 분류하였다(표 3 참조).

표 3. 영화 속 주요 공간 의미해석의 그룹화

포함 의미	의미군
야망, 기쁨, 화해, 새출발, 의지, 기대	희망
정겨움, 회상, 화합	낭만
도시화, 근대화, 회귀, 시간의 변화, 신분의 상승, 새로운 매체의 등장, 경계, 관문, 이동	변화
의명성, 고독, 단절, 격차, 미로	소외
좌절, 비극, 시련, 방황, 이별, 갈등, 비애, 빈민	절망
은밀한 만남, 우연한 만남, 동반	만남
놀이 공간, 삶의 터전, 공동체 생활, 조망	일상
싸움, 억압, 사건, 사고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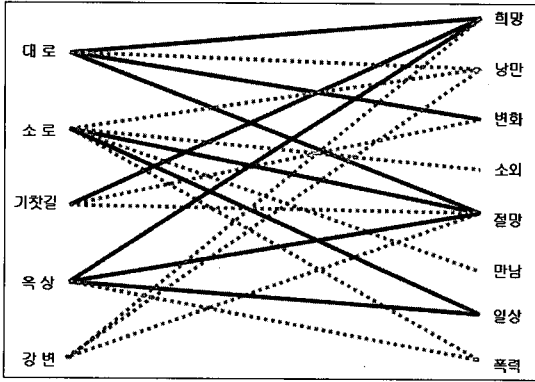


그림 3. 영화 속 도시 공간과 의미해석의 연관성

18편의 영화를 세로로 두고 주요 도시 공간을 가로로 둔 후 그룹화한 의미군을 정리하면 각 영화의 각각의 주요 공간에서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는지가 파악되었다. 이 표에 의해서 영화를 제외하고 주요 공간과 의미군이 표현된 빈도수에 의한 연관 관계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주로 많은 빈도를 보인 것을 실선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에 나타난 주요 공간과 의미를 한 눈에 파악해 볼 수 있다. 주요 도시 공간과 해석된 의미가 반드시 일대일 상관관계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일련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주요 공간이 가지는 특징과 영화에서 나타난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로(大路)

대로는 희망, 변화, 절망적 상황을 표현하는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였다(그림 4 참조).

이는 역사적 상황, 사회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0년대 영화에서 나타나는 희망과 도약의 상징인 신작로로서 1960년의 '박서방'의 마지막 장면의 곧게 뻗은 길은 근대로의 방향을 상징하고 있다(김계희, 2002). 이러한 대로의 이미지는 70~80년대의 영화에서 나타나는 권력에 의한 억압과 폭력에 대항하는 저항 공간으로의 의미로 변화한다. 대로가 지나는 파노라마적 시각풍경은 현실을 스펙터클로 바꾸는 자본이 지배하는 도시 공간의 대표적 이미지로 등장하곤 한다. 특히 간판으로 가득 찬 대로의 모습은 근대화가 시작되는 60년대 초기 영화인 '오발탄'(1961)에서 '고양이를 부탁해'(2001)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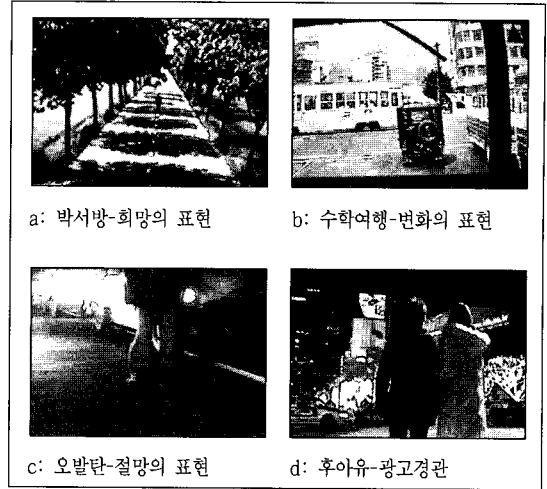


그림 4. 대로의 표현

지 소시민과 스펙터클한 모습과의 대비, 화려함 속의 소외 등의 장치로서 등장하였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에서 간판이 일색인 도시공간이 일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미지와 영상의 소비시대에 이르러서는 전광판 스펙터클로 확대되어 광고 전단 매체로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의 역할도 하는 예를 '후아유'(2002)에서 찾을 수도 있다. 대로는 상업과 권력에 의한 공간 지배 논리가 표출되는 공간으로 도시 문화의 변화가 예민하게 포착되는 지점이다.

2) 소로(小路)

소로는 일상 생활, 절망, 폭력의 표현에 주로 많이 등장하였다(그림 5 참조).

대로가 희망과 절망의 극단적인 대비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면, 소로는 도시인의 다양한 일상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소로는 사적 공간에서 곧바로 만나게 되는 공적 공간으로, 대로가 시대성이나 당대의 상업 자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간임에 비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개인적 생활의 장으로서 그리 큰 변화가 없는 반복되는 일상 공간이다. 작은 일상이 모여 도시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소시민의 '이야기' 혹은 '상황'으로서 소로는 여러 영화에서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마부'(1961), '오발탄'(1961), '고양이를 부탁해'(2001)에서의 골목길은 좌절, 시련, 빈민 등의 절망적인 감정의



그림 5. 소로의 표현

로 표현되었고,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에서는 익명성과 미로의 구조로 인한 폭력의 공간으로 표현되며 선악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전도적 장치로 쓰였다(임석재, 1999). '박서방'(1960), '폴란드의 개'(2000)에서의 골목길은 일상적 만남 혹은 은밀하거나 우연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며, 특히 '꼬방동네 사람들'(1981)에서의 골목길은 마을회의, 놀이, 빨래, 싸움, 화해, 축제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며 일상생활을 담은 삶의 터전으로의 장, 소통의 장, 사건과 해소의 장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소로는 영화에서 고찰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공간으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삶의 모습은 겉으로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견고하게 구축되는 일상적 삶의 누적된 공간이다.

3) 기차길

기차길은 희망, 변화, 절망의 표현에 주로 등장하였다(그림 6 참조).

기차길은 경계선상에서 시공간적 변화나 삶의 양식의 질적 변화에 자주 등장하였다. 기차길은 다른 경관에 비해 역동적인 경관이며 문지방과 같은 경계기능의 양의성을 지니고 있다. 기차는 내면 공간에서의 도주의 수단이자 외부 공간으로 나가는 매개물로 표현된다(이어령, 2000). 기차 안에서 밖을 보는 움직임은 경관과 기차 밖에서 선로를 따라 어디론가 떠나가는 기차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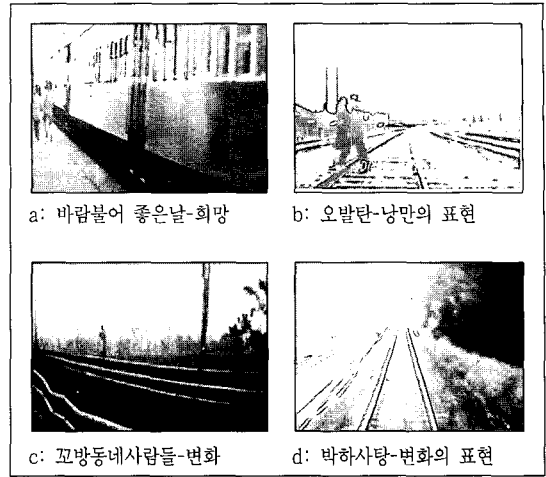


그림 6. 기차길의 표현

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한다. 머무름과 떠남이라는 두 개의 의미가 충돌하면서 감정적 과장이 발생하고, 이 감정적 과장은 영화 속에서 새로운 출발, 변화, 희망, 회귀, 낭만 등의 의미로 활용되었다.

'수학여행'(1969)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을 표현하고, '바람 불어 좋은 날'(1980), '꼬방동네 사람들'(1981)에서는 근대화에 의한 변화를 상징하며 '박하사탕'(2000)에서는 과거로의 회귀, 순수로의 회귀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신승엽, 2003). '바보들의 행진'(1975), '바람 불어 좋은 날'(1980)에서는 어디론가 떠남을 의미하며 영화의 엔딩 부분에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오발탄'(1961)과 '장미빛 인생'(1994)에서는 어두운 분위기의 전체 영화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낭만적 분위기의 연출을 위한 장치로서 기차길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고양이를 부탁해'(2001)의 첫 장면은 인천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보여준다. 서울에 인접하여 위치한 인천이라는 복합적 도시 이미지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기능성의 표현에 적합하여 설정했다고 정재은 감독은 밝히고 있다(박현선, 2001).

4) 옥상

옥상은 희망과 절망, 일상생활의 표현의 의미로 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옥상은 도시 생활에서 중요한 생활공간이며, 그 의미는 다중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형 건축물의 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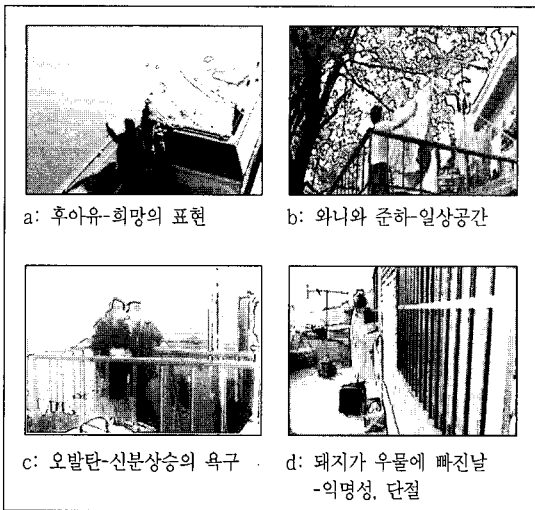


그림 7. 옥상의 표현

과 함께 옥탑방도 자주 등장하였다.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주거는 어느 정도 소득을 확보한 중산층이 선호하였고, 서울의 단독 주택지역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전통적인 주거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이러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주차 공간 및 공공공간의 부족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나타나고 주거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다(한국도시연구소, 1998). 옥탑방 자체는 초라할 지라도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그리는 옥탑방과 뒤로 보이는 원경은 매우 낭만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이미지를 창조한다(심승희, 2004). 옥상에서는 조망은 신처럼 내려다보는 태양의 눈이 될 수 있다. 더 넓은 범위를 조감하는 신비주의적 층동의 고양이, 다름 아닌 바로 관조자적 '시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기도 하다(박명진 등, 1996). 이 욕망은 '오발탄'(1961)에서는 전후 절망적인 젊은이의 신분 상승 욕구의 의미로 나타나기도 하고, '후아유'(2002)에서는 미래를 향한 희망과 야망의 의미로 표현되었다. 옥상은 하늘과의 경계 공간으로서 희망이나 절망 등의 극한 감정의 묘사의 배경으로 사용되면서, 그 감정을 더욱 극적으로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과 '플란다스의 개'(2000)에서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도시인의 소외감을 극대화

하는 배경으로 옥상공간이 등장하였다. 즉 옥상 공간은 낭만적 장치로서의 의미 외에도 도시의 주거 변화에 따른 중요한 옥외생활공간으로 이해된다. 옥상은 도시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과 극한의 인간 감성의 전위 지점으로서의 의미까지 폭 넓고 다중적인 의미로 나타났다.

5) 강변

강변은 희망, 낭만과 절망의 의미가 표현되는 장치로 주로 등장하였다(그림 8 참조).

대도시에서 강이 가로질러 흐른다는 것은 경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강과 함께 교량은 도시의 발전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CF에도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서울에서의 한강이라는 자연 경관은 복잡한 도심과는 대조적으로 한가롭고 낭만적인 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주 등장하였다.

강변은 물이 주는 치유 효과와 탁 트인 열린 조망이 가능한 장소로 인간 감성의 변화를 증폭,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영화적 내러티브를 더 강조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마부'(1961), '박하사탕'(2000)에서는 비애감을 더욱 강조하여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거나, '꼬방동네 사람들'(1981), '장미빛 인생'(1994)에서는 낭만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바람불어 좋은날'(1980)과 '후아유'(2002)에서는 자신의 야망과 희망을 표현하는 배경으로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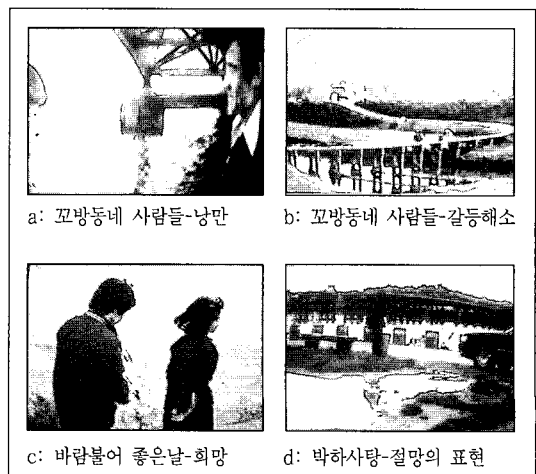


그림 8. 강변의 표현

3. 사례 영화에 나타난 시대적 도시 공간의 의미 변화

영화의 배경은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 및 당대의 이데올로기, 영화사적인 상황 등이 연관되어 고찰되었다. 60년대는 근대화가 태동하면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과 급변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점이며, 이 때의 영화들은 가난 혹은 전쟁후의 상처를 겪는 도시민의 삶이 신작로, 어두운 골목, 희망의 대로 등에서 투영되고 있다. 60년대 후반 '수학여행'에서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변화함의 상징으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엿볼 수 있었고, 70년대의 강력한 군부 독재시대에서의 젊은이의 반항과 저항 심리를 텅 빈 광장이나 대로에서 고찰할 수 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은 소비자본주의 체계의 눈부신 성장을 하며 70년대와는 다른 소재의 영화가 등장하지만 현실적 묘사에는 억압이 많았다. 이 가운데서 주목할 영화는 '바람불어 좋은 날'과 '꼬방 동네 사람들'로 개발 중인 도시의 내부나 주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급조된 개발 붐 속에서 뒤틀린 가치관으로 갈등을 겪는 인물들의 모습이 묘사된다.

이 후 도시와 개인의 대비를 통해 파멸해가는 인간의 모습을 '칠수와 만수'(1988), '초록 물고기'(1997)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초록 물고기'는 장소성이 해체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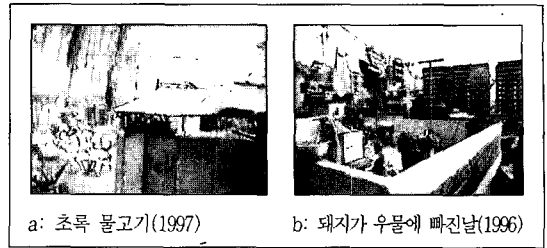


그림 10. 1980~90년대 이후의 주요 공간의 표현

서 개인 혹은 가족의 정체성이 해체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최지훈, 1997). 이 영화에서의 영등포와 일산이라는 공간의 지리학을 통해 시대의 상처를 드러내며, 과거에 대한 보상 심리, 과거 지우기, 개발과 변화라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창동 감독은 밝히고 있다(지윤희, 1999: 176. 재인용). 또한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등장한 90년대 후반에서부터는 개인적 감정이 중요시 되는 일상적 공간으로의 묘사가 두드러지게 된다. 1996년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의 공간은 무엇인가를 상징하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주목한다. 즉, 공간의 구체성보다는 도시의 일상생활들이 가지적 형태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도시 속에서의 의미를 담아 내거나(지윤희, 1999) 사회에서 개인으로, 개인의 사회적 삶에서 은밀한 내면의 공간으로 영화의 공간이 바뀌었다(이효인, 1999).

즉 영화에서 특별한 장치나 의도에 의한 공간 묘사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일상적 공간의 묘사에 치중함으로써 일상 공간은 확연히 부각되지는 않지만 생활과 밀접한 도시인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담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장소임이 강조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영화를 통하여 도시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의미 해석은 세 가지 단계의 층위로 진행되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찰하는 발생적 의미의 파악과 공간 배경과 영화 장면의 상황을 고려한 표층적 의미의 파악을 거쳐 공간의 은유 또는 환유적 의미를 포함하는 해석적 의미를 포착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영화 장면을 공간 배경별로 구분한 결과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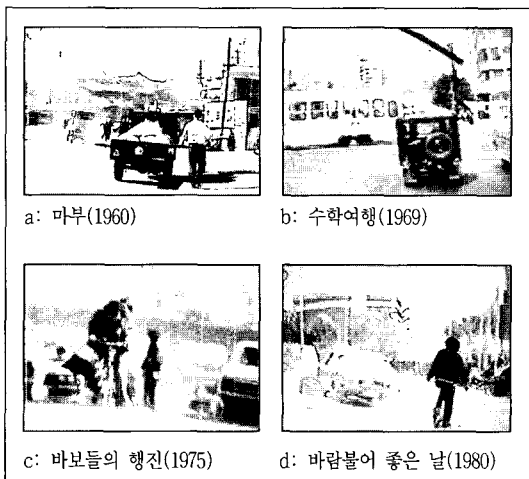


그림 9. 1960~80년대 주요 공간의 표현

빈도수로 공간을 분류해 보면 소로, 대로, 기차길, 옥상, 강변으로 나타났다. 한국 영화에서 주로 나타난 길(대로, 소로)은 길이 한국적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이고, 다양한 삶이 표출되는 일상적 공간이란 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변화와 대비의 이미지 장치로서 기차길과 옥상, 강변은 경계 공간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극적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용되며 이들 경계 공간에서의 인간의 감정은 보다 증폭되고 강조되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영화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사례 영화를 살펴본 결과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당대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고 시대에 따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권력과 상업 자본에 영향을 받는 대로의 경우는 이와 같은 변화가 가시적으로 드러났으며, 사회 정치적 억압기를 지나 다양한 표현 형식의 영화가 등장하면서 일상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의 영화는 도시 공간으로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거나(김인식 감독의 '얼굴없는 미녀', 2004), 혹은 도시 이미지 자체를 영화 전반의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하기도 하며(장운현 감독의 '뽀', 2004), 공간 자체를 영화적 주제로서 인식(김지운 감독의 '달콤한 인생', 2005)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18편의 영화라는 연구 대상의 한정, 영화 선정 시 개입되었을 주관성과 그 해석이 가져오는 자의성 등으로 인해 일반화 시키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최소화 하고 의미해석 결과를 보다 객관화 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대별 다양한 영화의 선정과 여러 층위의 의미 구조 분석의 틀을 활용하였다. 1960년도부터 최근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화 사례를 선정하여 시대적 고찰로서 변화의 경향을 모색해 볼 수 있었고, 일련의 공통된 경향의 파악으로 인해 주로 나타난 도시 공간과 그 특징을 포착해 볼 수 있었다.

도시 공간은 인간의 감성이 투영되고 삶의 이야기가 집적되는 지점이며 일상적 생활 문화를 담는 그릇이다. 한국 영화를 통하여 조망해 볼 때 우리의 도시 공간은 일상적 이야기와 상황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생활 문화 공간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영화를 통하여 해석한 이러한 의미는 도시공간을 조작적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실용적인 시각을 보정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 연구이지만 새로운 가능성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적 접근을 통한 도시 공간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시각이 상호 교류됨으로써 일상적 도시 문화의 다층성과 다면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도시 공간의 연구 주제와 방법이 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접 분야와의 상호교류로 도시 공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기를 바란다.

- 주 1. 본 연구에서의 도시공간은 주거, 생산, 소비, 여가 등의 다양한 인간의 활동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화된 공간으로 설정한다. 개인적인 정원, 옥상 등의 사적 영역에서 길, 공원 등의 공적인 영역까지를 포괄하고, 도시 내에 위치한 산, 강 등의 자연 공간을 포괄하는 광의적 의미로 사용한다.
- 주 2. 1960년대는 정치, 사회적 안정과 함께 정부 주도의 강력한 공업화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대도시의 공업화가 촉진되었다. 고속도로를 비롯한 교통 발달과 각종 통신매체의 발달은 도시로의 이주 의사결정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 전국적인 이촌 현상도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도시인구 성장의 가속기를 맞이하게 된다. 1970년대는 오일 쇼크로 인한 세계경제불황의 시기였고, 아파트 주거가 본격화되었다. 1985년 이후에는 도시성장의 속도가 완화되면서 도시 인구성장이 둔화되었다. 제3차 산업 인구가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교외도시가 성장하면서 수도권 인구조집현상이 일어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1996년 6월에는 GNP가 1인당 1만 달러가 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세계화 시대의 도래, IMF 구제금융체제로 인한 구조조정, 지방 자치제의 실시로 인한 지방 정부의 권한 증대, 정보화와 세계주의의 대두와 같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한국 도시지리학회편, 1999).
- 주 3. 1960년에서 1979년까지는 한국 영화의 '전성과 굴절기'로서 1960년대가 리얼리즘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시기에 비해 1970년대는 텔레비전 보급과 확산, 정치적 탄압 등 여러 가지의 내외적 요인으로 한국 영화상 질곡의 시기였다. 1980년대는 영화전문인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출발기', 1990년대는 한국 영화가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성장하는 '부흥기', 2000년대는 작품경향, 수익성, 산업 구조적 면에서 새롭게 도약한 '성장 및 변화기'로 구분한다(이효인, 1999).

인용문헌

1. 강홍빈(1983) 도시 환경의 기호학:1 그 가능성과 함께, 세계의 문학 8(1): 164-166.
2. 구동희 엮음(1999) 영화 속의 도시, 서울: 한울.
3. 기호학 연대 편(2003) 대중 문화 낯설게 읽기, 서울: 문학과 경계사.

4. 김성곤(2004) 영화속의 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5. 김소영(1996) 시네마, 테크노 문화의 푸른 꽃. 서울: 열화당.
6. 김재희(2002) 1950년대 말~1960년대 한국 영화에 나타난 도시성과 근대성. 중앙대학교 첨단영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김창원(1994) 시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김태형(1999) 영화에 재현된 공간의 공간정치 경제학적 일부 분석-'초록물고기'와 '강원도의 힘'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박명진, 정준영, 이영욱, 양은경, 김용호, 손병우, 김연중, 김창남(1996) 문화, 일상, 대중. 서울: 한나래.
10. 박정순(1995) 대중 매체의 기호학. 서울: 나남출판.
11. 박철수(2002) 소설속 공간 산책. 서울: 시공문화사.
12. 박현선(2001) 정재는 감독과의 인터뷰중. www.nkino.com
13. 신승엽(2003) 박하사탕. 서울: 삼인.
14. 심승희(2004) 서울 시간을 기억하는 공간. 서울: 나노미디어.
15. 영화진흥공사 기획(1989) 한국영화 70년, 대표작 200선. 서울: 집문당.
16. 이경화(2004) 설치미술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재원의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이용관(1999) 유현목 한국 리얼리즘의 길찾기. 서울: 도서출판 큰사람.
18. 이명희(1989) 의미 체계로서의 도시 환경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 이어령(2000) 공간의 기호학. 서울: 민음사.
20. 이원아(1995) 잡지 광고에 나타난 경관 이미지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이호인(1999) 영화 미학과 비평 입문.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2. 임석재(1999) 놀이로서의 폭력-골목길의 이미지. hppt://search.hani.co.kr/data/cine21/2000/0201.html
23. 정은주(2001) 영화속의 도시, 건축에 관한 연구-영화 '블레이드 런너'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 논문집. pp. 549- 552.
24. 전범진(2002) 오즈 야스지로의 후기영화에서 나타난 기호학적 공간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5. 주은우(2003) 시각과 현대성. 서울: 한나래.
26. 지윤희(1999) 최근의 한국 영화에 나타난 서울 읽기. 영화문화연구 (1):175-213.
27. 최지훈(1997) 장소성의 해체와 정체성의 붕괴. 공간과 사회 (9).
28. 한국도시연구소(1998) 한국도시론. 서울: 전영사.
29. 한국도시지리학회편(1999) 한국의 도시. 서울: 법문사.
30. Benjamin, W.(1934) Das Kunstwerk im Zeitalter seiner Reproduzierbarkeit. 반성완(역), 발터벤야민의 문예이론. 서울: 민음사, 1983.
31. Hartmann, N.(1953) Asthetik. 전원배(역), 미학. 서울: 을유문화사, 1995.
32. Lefebvre, H.(1991)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Blackwell.
33. hppt://www.seoulfc.or.kr
34. hppt://www.kofic.or.kr

원 고 접 수: 2006년 2월 21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6년 4월 3일

3인의명 심사필